

노조보장, 사회적요구 수용... '가보지 않은 길' 가는 삼성

>> 1면 '삼성의 변화'서 계속

21년동안 취약계층에 6200억
합법적 노조활동 보장 결단도

매년 연말에는 청소년 교육과 취약계층 생계 지원, 의료보건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각 계열사와 함께 매년 성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삼성은 1999년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데,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100억원씩,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억원씩, 2011년부터 2012년부터는 매년 500억원씩을 기탁해왔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간 연말 이웃사랑 성금으로 전달한 성금은 6200억원에 이른다.

50년간 고수해온 무노조 경영 원칙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작년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의 첫 노조가 출범하면서다. 기존에도 노조가 3곳 있었지만 노조원을 다 합쳐도 30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서는 것은 처음으로 추진력과 지속적 활동을 한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는데 의미가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8년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직원 8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면서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노조 활동은 보장됐지만 오랜 기간 무노조 경영 철학을 지켜온 만큼 노조가 뿌리를 내리고 원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기업에 제기되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의 순환출자에 대

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계열사들이 가진 지분을 매각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도 했다.

세계 한 관계자는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각계의 평가를 수용했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필요하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가 조기 해소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과거의 여러 행보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의 요구를 더 수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삼성 '그랑데 AI' 건조기 한 달 만에 1만대 팔렸다

혁신 AI기술·디자인 등 주요
사사 건조기 중 최단기간 판매

삼성전자 그랑데 AI 건조기(사진)가 출시된지 불과 1달 만에 판매량 1만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그랑데 AI 건조기를 1만대 이상 판매했다고 3월 1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16kg 건조기를 1만대 판매하는데 8주를 필요로 했다. 그랑데AI 건조기 판매량이 2배나 많은 셈이다. 삼성전자 건조기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판매했다.

삼성전자는 그랑데AI 건조기 장점으로 ▲혁신적인 AI 기능 ▲3무 안심 건조 ▲슬립하고 감각적인 디자인 등으로 분석했다.



새로 도입한 베이지 계열 그레이지 색상 인기도 한몫했다. 건조기 판매량 중 30%가 그레이지 색상이었다.

/김재용 기자 juk@

트레일블레이저 110만원... QM6 최대 143만원 할인

'개소세 인하'로 車값 뚝... "지금이야 구매적기"

국내 완성차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개별소비세 70% 인하 카드를 꺼내자 이에 맞춰 대규모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봄철 성수기를 맞아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내수 시장 녹이기에 들어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이달 '파인드 뉴 스타트, 파인드 뉴 쉐비' 캠페인을 진행한다.

우선 선수금과 이자를 얹어 월 납입금을 최소화한 '더블 제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선보인다. 무이자 할부 기간은 스파크·말리부(2.0 터보, 디젤)·이쿼녹스 36개월, 카마로 SS 50개월, 볼트 EV 60개월이다.

또 무이자 할부 이외의 혜택을 원하는 고객에게 특정 금액 혹은 차량 가격의 일부를 지원한다. 할부와 추가 혜택이 결합된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차종별 혜택 폭은 스파크 100만원, 말리부(2.0터보·1.6디젤) 180만원, 이쿼녹스 7%, 카마로 SS 10%, 볼트 EV 300만원이다. 트랙스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120만원의 현금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지엠 쉐보레 차량별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면 77만~143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뛰어난 가성비로 출시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은 트레일블레이저는 시작가를 기존 1995만원에서 1910만원으로 낮아졌다.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고객 50% 이상이 선택한 최고급 트림 RS 모델을 구매하면 110만원 이상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더 뉴 말리부는 전 모델과



한국지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지엠 '트랙스' 36개월 무이자 할부
쌍용차 '티볼리' 최대 102만원 할인
SM3 Z.E 현금구매시 600만원 혜택

트림에 걸쳐 100만원 이상이 저렴해졌으며, 가격 인하 효과 폭은 102만~142만원이다.

르노삼성은 3월 한달간 신차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XM3 잔가보장 할부 및 노후차 교체 특별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일 정식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디자인 SUV인 XM3 구매 고객은 기존 잔가보장 할부 상품보다 높은 잔가율을 보장하는 '엑스퍼리언스'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엑스퍼리언스 할부는 최대 70%의 잔가율(1년 이내) 보장으로 차량 교체 주기가 비교적 짧고 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XM3 전용 상품이다.

또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3월부터 6월까지 5%에서 1.5%로 70% 인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엔진 및 트림 별로 SM6는

92만9000원에서 최대 143만원까지, QM6는 103만원에서 최대 143만원까지 인하된 가격에 판매된다. XM3의 경우도 최종 가격 공개 때 개소세 인하분이 함께 반영된다.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다. SM3 Z.E. 현금 구매 고객에게는 600만원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치 구매 고객에게는 현금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용품구입 지원비 또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한다.

쌍용차는 3월부터 개소세 인하 적용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우선 쌍용차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가 5%에서 1.5%로 70% 인하됨에 따라 차량 가격을 73만~143만원 낮춘다. G4 렉스턴은 3504만~4498만원에서 3361만~4355만원으로 143만원 인하된다. 코란도 가솔린은 2201만~2688만원으로 트림(등급)에 따라 98만~119만원 내려간다. 티볼리 가솔린은 1637만~2297만원으로 73만~102만원 낮아진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에에컨 공조 기술 美서 '엄지척'

냉동공조협회 '퍼포먼스어워드' 수상

LG전자가 미국에서도 공조 솔루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냉동공조협회(AHRI)로부터 6개 공조 제품군에 대해 퍼포먼스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3월 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AHRI는 각 제품군에서 무작위로 제품을 선정해 3년 연속으로 1차 성능시험을 통과해야만 이 상을 수여한다. 때문에 받기 어렵고 신뢰도가 높은 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LG전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중소용량 시스템 에어컨 ▲공냉식 냉방시스



멀티브이

/LG전자

템 ▲수냉식 냉방시스템 ▲일체형 에어컨 등 6개 주력 제품군의 63개 모델이 냉동공조협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했다.

혹한에서도 동작하는 멀티브이와 일체형 제품 피택 등을 앞세워 북미 시장에서 11년 연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용 기자

에어비앤비-경희대 스마트관광 '맞손'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경희대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잡아내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연구협력에 나선다.

에어비앤비와 경희대 스마트관광연구소는 2월 28일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장소와 사람을 연결하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질 것이라 보고, 국내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스마트관광이란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관광 형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최근 개별 관광 증가에 따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희대 스마트관광 연구소는 공유숙박과 스마트관광 등에

대해 에어비앤비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올해 2학기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다.

경희대는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온라인 리뷰 분석을 통해 관광객의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신규 시장을 찾아내는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각 지자체에 스마트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관광 관련 강의는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 트렌드 분석과 함께 전통적인 숙박업자와 다른 개인들의 창의적인 경영전략을 소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희 기자 lmh@